

## 임진왜란사 연구와 한·중·일 중요 사료

정 구 복\*

### 【국문초록】

본고는 2016년 제59회 전국역사학대회의 한국 사학사 분야의 패널에서 기조강연을 한 글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임진왜란의 국제적 배경과 성격을 설명했다. 서양세력과의 교류로 인하여, 발생한 전쟁임과 국제전과 약탈 전쟁이라는 점을 논했다.

일본군의 초기 승승장구한 것은 대부대의 침입을 당시 조선의 소규모 지방 군대가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천혜(자연적)의 요새인 한강을 지키지 못한 것은 한양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음을 들어 선조의 책임과 문신관료들의 책임을 논했다. 전세를 역전시킨 것은 1593년 1월 초 명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것이 큰 계기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 후방지역과 전방지역에서 이순신의 해전에서 완전 승리하고, 의병들의 활동이 일어나 빼앗긴 성을 탈환하여 전세를 역전시켰음을 서술했다. 3년 간의 긴 강화회담이 결렬되자 일본은 2차 침입을 하였고, 2차 침입은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점령함에 목표를 두었고, 무자비한 학살과 민간인을 포로로 잡아가는 약탈전쟁을 벌렸음을 서술했다.

전쟁 중 조선왕 선조의 무능한 정책과 조선정부의 부패된 것에 대해 백성들이 반기를 든 것을 설명했다. 임진왜란은 부패한 조성왕조를 이후 300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년간 지속되는 계기가 된 원인은 사람의 권한강화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성리학의 정치이념이 장기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연구 상의 새로운 방향으로 몇 가지를 언급했다. 전쟁의 전체 상황을 그릴 수 있는데 연구가 미흡한 문제, 예컨대, 일본군이 장악한 지역의 대민관계, 일본군의 군량조달 상황, 明軍의 군량조달 상황, 당시의 통신과 교통문제 등을 지적했다. 의병의 연구에서는 의병 구성원 문제에서 노비신분이 농민이라는 용어에 포장되어 감추어진 점 등을 노비신분으로 밝혀내야함을 강조했다. 임진왜란 연구에 있어서는 문제의식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중·일의 중요 사료를 개관하면서 그 특성을 비교 서술했다. 이에서 사료비판의 중요성과 사료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주제어】

임진왜란, 국제전쟁, 선조의 무능, 지형지물, 의병, 노비신분, 사료, 사람, 明軍.

### 목 차

I. 들어가기	IV. 임진왜란 연구 상의 문제점과 연구방향
II. 임진왜란의 국제적 배경과 전쟁의 성격	V. 한·중·일의 중요 사료
III. 전쟁의 중요상황	VI. 마무리

### I . 들어가기

임진왜란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의 규모와 전쟁 기간으로 보아 세계사적인 대전쟁이었고 국제전쟁이었다. 그 피해는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조선왕조에

준 영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 대단히 컸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 전쟁 후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조선왕조가 유지된 것은 지배층인 사람의 권한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왜란이 일어난 국제적 배경과 성격을 살펴보고 임진왜란에 대한 중요 상황을 다루었다. 이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 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한·중·일 삼국의 전쟁 사료를 다루고 그 특징을 서술했다. 본고는 59회 전국역사학대회 사학사분과 페널에서 기조강연의 원고로 작성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글이다.

## II. 임진왜란의 국제적 배경과 전쟁의 성격

15세기 후반 이후 서양의 무역선이 중국과 일본에 와서 상호 교역했다. 그러나 중국은 무역을 조공형식으로 수용하여 중화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여 서양문화의 수용은 한계가 있었다. 1557년 포르투칼은 중국의 마카오를 할양 받고 중계무역의 독점권을 확보했다. 포르투칼 상인은 일본에 총포를 은을 받고 팔았고, 그 은은 명나라에서 비단과 자기, 생사를 사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멕시코와 페루의 포토시 은광의 개발로 인한 엄청나게 불어난 은과 유럽의 은마저 명나라에 흡수되어 당시 명나라는 은의 종착지였다. 명나라는 들어난 은으로 인하여 전세와 부역을 모두 은으로 받아들인 소위 '일조편법(一條鞭法)'을 실시하였다. 명나라에서는 이런 풍부한 은을 바탕으로 군대를 모병제로 편성하였다. 조선에 파병된 군대도 은 5냥을 받고 들어온 군대였다.

명나라에서는 서양식 화포가 불량기포라는 대포를 제작함에 응용되었으나 개인화기의 개발은 없었다. 또한 명나라에서는 예수회의 신부 마테리오리치가 입국하여 유학을 공부하여 서양의 소식 즉 「곤여지도 坤輿地圖」라는 세계지도와 기하원본 등을 한역하였고, 천주교의 전파를 위해 천주실의를 한문으로 썼다. 그의 영향은 이후 조선에까지 미쳤으나 서양의 정보는 거의 없었다. 한국이 지리 상 북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기 때문에 서양교역선이 찾기 힘들었던 점

도 있었지만 서양 교역선이 들어왔다고 가정해도 당시 위정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 아니었고, 성리학의 학문적 배타성 때문에 그들과 교섭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포르트칼의 새로운 총포인 개인 화기와 화약제조법을 예수교와 함께 수용하여 얼마 후 총포의 생산량이 세계 2위에 달할 정도로 무기체계에 대 혁신을 달성하였다. 일본 열도의 통일을 완수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는 명나라를 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조선에 길을 빌려달라는 명분으로 1592년 15만8천명을 동원하여 조선을 침략해왔다.

임진왜란의 성격은 그 규모와 기간에 있어서 세계사적인 대전쟁이었고, 국제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에 동원된 군사의 연인원이 조선군 70만여 명(의병포함), 일본군 30만여 명, 명군 11만여 명이었던 대규모 전쟁이었고 7년 간 행해진 점에서 세계사적인 전쟁이었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이 참여한 국제전이었으나 이에는 서양신부가 참전하였고, 명군 중에는 티베트 종족, 서장인, 베트남인도 있었다.<sup>1)</sup> 조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탈리아에 팔려간 사례도 있어 국제적 성격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명·청의 교체와 일본에서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그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지만 명·청의 교체를 임진왜란의 결과로만 볼 수 있는가는 다시 재고해보아야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중 특히 중국의 경우 명조의 정치적, 군사적 문제가 멸망의 주원인이었지, 임진왜란에 두 번 파병된 군대는 각각 5~6만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경우도 전쟁의 결과라기 보다는 독재자 히데요시의 죽음이 정권 교체의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함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1) 이에는 명나라 장수 劉綎이 중국 왜란 직전에 서남부에서 전투를 수행하였고, 그의 군대 중에 이런 외국인도 포함되었다. 그는 1, 2차 파병 때에 왔던 장군으로 1598년에는 순천 왜교성 전투를 주도했다. 정구복, 2014, 「한중일 사료로 본 왜교성 전투의 주역들」, 『정유재란과 왜교성전투』(사)이충무공유적영구보존회 참조.

조선왕조는 살생과 기근으로 인구가 100만 명이 줄어들었고, 10만 명의 민간인이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 조세의 균원이었던 경작되는 토지가 150만결에서 50만결로 축소되었다. 이처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조선왕조가 이후 3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을 통해 충효가 더욱 강조되고 지배층이었던 사람의 중앙과 지방 통치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sup>2)</sup> 그러나 정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군체가 수도 방어를 위해 5군영제 체제로 바뀌었고, 군인은 직업군인과 의무적으로 교체되는 농민병으로 구성되었다. 수취체도의 변화, 유통경제의 발달, 화폐제도의 실시 경제적 변화도 나타났다. 폐폐되고 불안한 민생을 해결하려는 학문인 실학이란 사회개혁 사상이 일어났다. 노비제의 변화, 양반신분의 확대 등 신분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왕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주거지를 옮기거나 전국을 이동하는 현상이 이 기간에 일어났다.

전쟁은 자연 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역사를 지리 중심으로 파악하는 역사지리학이 발생하여 조선 후기의 역사학의 새로운 경향으로 풍미했다. 임진왜란은 조선의 역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눌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 민중들의 생활에 준 충격은 호란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에 미쳤고 또한 커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기득권이 강화된 것은 성리학적 사회체제로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sup>3)</sup>. 현재 민족주의 관점에서 임진왜란은 외부의 충격이라고 그 영향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민중의 생활사, 학계에서는 중대한 시대의 분수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예컨대 선무원종공신으로 의병을 일으키거나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 9060명이 책봉되어 지배층으로서 권위를 강화시켰다. 공신은 왕조유지의 첨병이었다.

3) 족보제도에서 친족 중심, 남자 중심,嫡子 중심의 족보가 편찬되어 서자와 외손가닥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제사에서 자녀가 윤행하던 관습에서 장자가 주관했으며, 이는 재산상속에서도 균분상속에서 장자중심의 상속으로 변화됨과 표리관계를 가진다. 결혼에서 친영제의 확립, 적서의 차별 등을 성리학 사상이 보편화된 결과였다. 성리학 사상은 계통을 중시하였으니, 왕의 정통, 문중의 종통, 사람의 학통이 중시된 것은 성리학 사상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역사학에서 정통을 강조하는 주자의 강목형 역사서술이 풍미하는 경향을 낳았다.

### III. 전쟁의 중요상황

#### 1. 일본군의 침략과 진군

1592년의 일본군의 침입은 9개 부대가 각각 진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1600)의 제1군과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1562~1611)의 제2군이 경쟁적으로 선봉을 차지하려고 하였다. 임진년의 일본군의 조선 침략은 고니시는 사위가 대마도주였기 때문에 조선의 상황에 대한 정보와 통역관 등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조선에 수차례 왕래한 승 겐쇼(玄蘇)를 대동하였기 때문에 서울까지의 지리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의 진군은 가토보다 유리했다. 고니시는 평양을 점령하고 가토는 함경도로 진격했다. 일본군이 명을 치려고 함이 전쟁의 목적이었다면 함경도를 침략하지 않고 대부대가 평양에 집결했어야 할 것이다. 명을 정복하겠다는 히데요시의 표현은 표면상 내건 것일 뿐이고 실제는 조선을 정복하는 것이 전쟁의 목표였음을 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니시는 1만8천여 명을 이끌고 읍력 4월 14일(5월 23일) 1000여명이 지키는 부산진과 그 다음 날 동래부를 몇 시간 만에 함락시켰다. 경상 우병사 박진은 도망을 쳤고 경상감사 김수도 도망쳤다. 활로 무장한 조선의 소규모 지방군으로서는 대군의 침입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었고 왜군에 대한 공포는 소문을 통해 퍼져나갔다. 유성룡이 清野작전이라고 하여 일본군이 침략을 당하면 모든 군량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이 피난해야 한다는 清野 작전은 무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3일 후 침입 보고를 접하였고, 여진족을 격파함에 큰 공을 세운 신립을 충주로 내려 보내 자신의 기병 수십 명과 서울에서 모집한 300여 명, 그리고 충청도 군사 수백 명을 지휘하여 충주 들판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웠으나, 4월 27일 제1군과 제2군이 합류한 3만여 명의 군대에 처참히 패배했다. 이는 신립이 적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못하였고, 지형지물을 제대로 이용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다. 충주의 패보를 받은 선조는 29일 새벽에 한양을 탈출하여 평양으로 도망쳤고 수도방어는 도원수 김명원과 留都대장 이양원에게 맡겼는데 그들도 모두 도망쳤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 한강에서 방어하지 못한 책임은 도체찰사의 임무를 떤 좌의정 유성룡의 책임도 크다. 선조는 도망친 김수나 박진, 경상 좌수사 박홍 김명원 등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여 국민의 사기를 고양시키지 못하였다. 적군을 막는 데에는 자연의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했으나 이런 전법을 사용하지 못했다.

도원수 김명원도 한강을 지킬 생각하지 않고 무기를 강에 던지고 임진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도망쳤다. 선조는 그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중용했다.

만약 죽을 각으로 한강을 지켰더라면 천혜의 요새인 한강을 건너는 적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을 것이고 도강작전을 상당히 지연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강을 건너는 적군을 화살로서도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예 싸울 마음조차 아예 없었다. 임진왜란사의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는 조선왕조의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군의 사기를 높여 주었다.

고니시와 가토의 군대가 전혀 저항을 받지 않고 한강을 건너 서울에 무혈 입성했다. 일본군은 후속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며칠간 머물면서 작전회의를 하였다. 히데요시는 조선8도의 조세를 받도록 하는 명령을 5월 16일자에 내렸다고 하나 이는 문서상의 허위일 뿐 각도의 점령을 담당한 장수들이 마구 써낸 허위적 수치에 불과했다.<sup>4)</sup> 고니시 1군은 6월 13일에 평양을 빼앗고, 가토는

4) 이 수치는 일본연구자 모두가 틀리고 있다. 中村榮孝, 『文綠·慶長の役』, 1969, 199쪽에서는 총계 11,916,186석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2000석이 모자라고 기타지마의 저서에서는 강원도의 할당량에 2000석을 추가하여 보충했으나 그의 총계는 8,191만 6,186석으로 7천만석을 더 보태고 있다. 첫글자 8이 1자의 오자이다. 번역본에서도 이 오류를 시정하지 못했다. 10년전 한림대학 학술회의 토론회에서 필자가 기타지마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주었다(기타지마만지(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53쪽; 김유성·이민웅 역, 『도오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경인문화사, 2008, 58쪽). 이는

함경도 지역을 점령하고 두 왕자를 포로로 잡았다. 선조는 명나라로 탈출하고자 하였으나 신료들의 반대로 국외 탈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조선은 명나라를 치겠다는 일본군의 정보를 명나라에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다. 이는 통신사 파견을 명에서 알게 되면 조선이 왜와 한통속이라는 의심을 받을 가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니시에게 개성을 빼았긴 상황에서 할 수 없이 명에 통보하고 구원병을 요청하였으나 명 측에서는 선조의 보고를 의심하여 그 진상을 살피는 일도 있었다.

## 2. 전세의 역전

명에서는 북경과 산동 지방의 바다를 지키고 왜를 막는다는 뜻의 ‘經略薊·遼·山東·保定等處防海御倭軍務’라는 직함을 띤 경략 송옹창의 지휘 하에 이여 송 제독이 이끈 군사 5만 명이 파견되어 조선군과 합작전투로 1593년 1월 9일에 평양성을 탈환했다. 이전에 송옹창은 병부상서 석성이 추천한 상인 심유경을 통해 한편으로는 대동강에서 고니시와 강화회담을 진행시켜 화전 양면 작전을 썼다. 명에서는 은 20만량을 선조에게 주었으나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명나라에서 앞으로 은의 조공을 요구할 가봐 왕은 은의 유통과 생산을 금지시켰다. 아마도 호종하는 관료에게 나누어주어 이때부터 은수저가 양반가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평양성을 조명 연합군이 탈환하기에 앞서 이미 전국에서 일본군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격파하거나 격퇴하여 후방에서는 전세가 반전된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에는 관군의 전투와 의병장들의 전투를 들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이순신이 5월 7일 옥포해전을 펼두로 당항포, 한산도 해전 등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하여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과 서해로의 진출을 막았고, 구로다 나가마사

---

허구적인 문서이지만 일본군이 필요로 한 군량미의 총체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黒田長正)의 황해도 침입을 연안부사 이정암이 9월 2일 연안전투에서 격퇴하였고, 함경도의 의병장 정문부는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함경도에 진출한 가토의 군대를 공격하여 축출하였다. 10월 진주목사 김시민은 진주성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그리고 의병장 곽재우는 임진년 4월 24일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유격전으로 일본군에 위협을 주었고, 고경명은 광주에서 김천일은 나주에서 조현은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싸웠다. 김천일은 강화도에 들어가 국왕과의 통신을 도와주었고 행주산성 싸움에도 참여하여 한강 이남을 엄호했다.

7월 10일 의병장 권응수 등이 점령당한 영천성을 탈환하고 9월 5일에는 경주지방의 의병과 관군 박의장에 의하여 경주성을 탈환하여<sup>5)</sup> 남부 지방의 왜군이 점령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방지역에서 의병의 봉기와 빼앗긴 성의 탈환은 일본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전진한 일본군과 후방군과의 연락과 군량, 장비 수송등을 단절시켰고 북상한 일본군이 남하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의병이 후방에서 일어나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전라도가 점령되지 않아 막대한 군량미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일본군이 진군에만 혈안이 되어 후방지역을 완전 점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족이 읍성 밖에 살고 있고 많은 노비를 소유하였으므로 의병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의병은 자기 고향의 지형을 잘 알고 적의 동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게리라 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 3. 강화회담

이여송은 벽제관에서 복병에 걸려 곤혹을 치른 후 전의를 상실하여 평양으로 후퇴하였고, 심유경은 1593년 1월경 함경도에서 철수한 가토와 용산에서의

5) 『선조실록』에는 경상도 좌병사 박진의 공로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그가 전공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의장의 힘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박의장은 6년간 경주부윤으로 경주 민을 지켜냈다.

강화회담을 가졌다. 카토는 한강 이남을 할양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명 측에서 는 이후 가토를 배제하고 고니시와 강화회담을 진행시켜 일본군의 완전철수를 요구했다.

1592년 9월에 일본군이 성종의 능인 선릉과 중종의 능인 정릉을 파괴한 것에 대해 일본은 만세토록 갚아야할 원수로 규정하고 조선 정부는 강화를 줄기 차게 반대하였다. 한양에 있는 일본군에게는 사방에서 공격해 오는 유격부대의 의병세력, 명군의 남하 등의 위협에 일본군은 더 이상 주둔할 수 없었다. 함경도에 진출하였던 가토와 나베시마의 군대는 절반을 상실했다.<sup>6)</sup> 이처럼 일본의 많은 병력이 손실된 데에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여름에 출정한 군사가 영하 20도로 내려가는 추위에 병사한 자가 더 많았다고 짐작된다.

명나라 사신이 1593년 4월 중순 1차 나고야에 가서 히데요시를 만나고 왔다. 이에서 상호 요구한 내용은 양국이 상호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차이를 보이자 송응창은 그 중 일부만 보고하는 기만정책을 취했다. 일본군은 4월 19일 한양에서 철수하여 5월 하순 경 경남 해안가로 몰려갔다. 그들은 히데요시의 명에 의하여 경남 해안가에 10여개의 왜성을 쌓았다.<sup>7)</sup>

명군도 남쪽으로 진군하여 상주 경주 전주 남원 등지에 주둔하였고, 우리 관군과 의병장들도 남쪽으로 내려갔다. 히데요시는 1차 전투에서 참패한 진주성을 복수하기 위해 두 차례의 명령을 내렸다. 이에 6월 20일 3만5천명이 공격해왔고, 창의사 김천일 충청병사 황진, 경상병사 최경희, 진주목사 서예원 등의 5천여 명의 군사로 진주성을 고수하려 했다. 주위의 명군은 수수방관하고 있고 의병장 꽈재우가 불참했고, 당시 갖 임명된 도원수 권율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주위의 지원이 없는 가운데 8일간의 전투에서 진주성이 함락되어 성안의 거의 모든 사람이 주류되는 참상을 당하였다.<sup>8)</sup> 그 후 일본군은 2만3천여 명을 남겨

6) 기타지마만지(北島万次), 앞의 책, 99쪽.

7) 기타지마만지(北島万次), 앞의 책, 166쪽.

8) 그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한·일간의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시민을 포함하여 7만여 명이 희생되었다는 설이 정설이고 일본의 기

두고 본국으로 철수하였고, 명군도 1만5천명을 남겨두고 군대를 철수했다.

일본 사신이 북경에 가다가 요동에 억류되자 심유경은 고니시에게 히데요시의 항복문서를 요구하였고, 고니시는 자신이 항복문서를 임의로 만들어 사신을 북경에 보내는 사기극을 벌렸다. 그 결과 일본사신이 북경에 들어가 교섭을 하였고, 1594년 12월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에 책봉하고 봉공을 허락한다는 책봉사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明使가 일본에 가기 전에 부산에서 억류된 두 왕자가 송환되고 명의 책봉사 李宗誠은 왜영에서 협박과 수모를 당하고 강화회담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고 도망을 쳤다. 책봉사는 이미 일본으로 건너간 부사 양방형과 심유경을 정사와 부사로 승격시켜 일본 교토에서 히데요시를 만났으나 회담은 결렬되었다.

#### 4. 정유재란과 전쟁의 종결

1597년(정유년) 1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일본은 재침을 준비하여 12만여 명의 군대를 재투입하였다. 1차 침입 때와는 달리 전쟁 목표를 전라도 지역에 진출하여 전공으로 코베기를 일삼아 무자비한 민간의 살육작전과 약탈 전쟁을 시도했다. 그리고 임진년 전투와는 달리 일본 장수들이 각개 약진하지 않고 함께 진격하였다. 이는 그들이 지리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明將 양원이 3000명을 이끌고 남원성을 지켰으나 평지성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양원은 판단하지 못했다. 고니시와 가토의 군대에게 8월 15일 남원성이 함락되어 1만여 명의 시민이 도륙되고 전주부가 무혈 점령당하였다.

---

타지마만지(北島万次)는 3천 명이 살상되었다고 한다. 또한 진주성 전투에 대하여는 유성룡의 해석과 안방준의 해석이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다.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창의사 김천일의 방어에 대한 실수로 해석하였고, 안방준은 호남의 관문인 진주성을 그대로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을 주장하였다. 유성룡은 5도체찰사의 임무를 떠고 상주에 와 있던 자신의 임무 소홀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은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명나라 군대도 6만여 명을 다시 증파하여 1597년 9월 7일 직산전투에서 승리하여 전세를 역전시켰고, 9월 16일 이순신의 명량해전에서의 승리로 일본 수군의 기세도 꺾여 일본군은 전라도와 경상도 해변가로 물러나 울산성, 사천성, 순천성을 본거지로 삼아 인근 지방을 유린 약탈했다. 경리 刑玠는 울산 전투에 4만여 명을 투입하여 1597년 12월 22일-1월 4일까지 13일간 가토가 주둔하고 있는 울산 도산성을 포위하여 싸웠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는 명나라 군사의 전략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울산성을 공격함에 직접 攻城 전략보다는 공성하는 척하면서 30일 정도 포위하여 외부와 차단하는 느긋한 작전을 수행했더라면 가토는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명군의 피해도 거의 없었을 것이다. 전투 수행에 대해 명나라 장수들의 공로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자 이를 조사하기 위한 감찰의 임무를 떤 정응태를 파견하였다. 그는 이를 빌미로 조선의 왕과 신료에게 갖은 모욕을 주었다.

명나라 총독 형개는 4로군<sup>9)</sup>을 편성하여 일본군을 1598년 9월 20일에 동시 공격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공격목표는 일본군의 집결지인 가토의 울산성, 시마즈의 사천성, 고니시의 순천 왜교성이었다. 사천성의 공격에서는 董一元의 무리한 공격으로 1만여 명의 전군을 잃는 참패를 당하였고, 울산의 서생포 공격에도 실패하였으나 『明史』에는 그들이 전승한 것으로 기술되었다. 명나라 유정과 진린, 이순신이 왜교성의 고니시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선봉장 고니시는 2달 반을 독안에 든 쥐와 같은 처지여서 공포에 떨면서 도망칠 길을 찾기에 고심했다. 왜교성 전투가 최후의 수류 양면의 합동 전투이었고, 명장의 타협으로 고니시는 탈출하게 되었다. 그를 잡기 위한 노량해전은 이순신이 원수를 그대로 살려 보낼 수 없다는 강경한 주장으로 조·명의 연합수군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 전투는 임진왜란의 최후의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수군의 세계적 명장인 이순신도 전사했다(11월 16일). 이순신의 자살설은 당시부터 있어 왔으나

---

9) 4로군은 육군의 동로군, 중로군, 서로군의 삼로군과 수군 진린의 수로군을  
칭함이다.

이는 그를 정적으로 보는 선조의 태도를 안 사람들이 지어낸 루머였다고 생각 한다.

정유재란의 피해는 일본군의 잔학성이 더 강하여 전라도 백성이 수많은 죽음을 당하였고, 10만여 명의 민간인이 포로로 잡혀 갔으며, 도공, 인쇄공, 서적 등이 약탈당하였다. 일본군이 장수의 전공 증표로 내기 위해 코베기를 하여 전라도 민간인이 무참히 당하였다.

무사의 나라 일본은 자기를 속이고 사기극을 벌린 고니시를 싸워서 죄를 짚으라고 했고 문치의 나라 조선은 이순신이 고니시가 폐뜨린 정보<sup>10)</sup>가 거짓 술책임을 확신하여 왕이 부산 앞바다에 진출하여 그를 잡으라는 공격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삭탈관직하고 국왕모멸 죄를 씌워 백의종군시켰다. 선조는 그 정보가 작전상 훌린 것임을 몰랐으니 선조와 그 주위의 비변사 당상관들의 엄청난 실수로서 일본군의 작전술에 놓락당한 것이었다.

### 5. 선조의 실책과 민심의 이반

전쟁의 모든 책임은 간사하고 무능한 왕 선조에게 있었다. 1590년 통신사의 보고를 받고 두 사람이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한 사람의 보고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전해진 침략의도를 경시하여 전쟁준비를 중단시킨 것이 첫째 실책이었고, 자신이 살기위해 급급할 뿐 전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둘째의 실책이고, 오직 명군에만 매달려 현실을 타개하려고 하면서 군량의 보급에만 전전긍긍하면서 백성을 살리고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휴전이 필요한데도 대간들의 의리론<sup>11)</sup>에 의해 휴전회담인 강화를 반

10) 가토가 언제 올 것이니 부산 앞 바다에서 그를 잡으라는 정보를 훌렸다. 이는 경상좌병사 김옹서에게 알려주었고, 이는 이순신에게도 전해졌다. 이미 알려진 정보는 사실의 정보가 아님을 이순신은 알았다. 이를 김옹서는 선조에게 알렸다. 그러나 가토는 이미 조선에 출병한 후였으므로 이는 전술상 고니시가 훌린 거짓 정보였음이 명백하다.

11) 간관들은 나라가 망해도 좋으나 원수인 夷賊과 강화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대한 것이 세 번째 실책이다. 뛰어난 무장을 지켜주지 못한 실책이 네번째이다. 오죽하면 그는 21번이나 양위를 선언하였으나<sup>12)</sup> 이는 그의 위선이었다. 이에 민심이 크게 국왕을 이반했다.

1592년 4월 29일 새벽에 시민을 보호할 조처도 취하지 않고 한양을 도망치자 성난 민중이 일본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궁궐에 불을 질러 경복궁이 소실되었고, 평양에서 탈출할 때도 시민의 거센 항의에 부닥쳤다. 그 후 의주에서 명나라로 탈출하겠다고 고집하자 당시 왕을 따라다니던 승지 겸 사관 3명이 짚어지고 다니던 사초를 불태워 버리고 국왕을 버리고 이탈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선조는 한양이 회복된 지 6개월만인 1593년 10월에 환도하였다. 이렇게 환도가 늦어진 것은 서울의 민심이 험악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은 이미 경복궁과 종묘가 불타 없어지고 거리에는 시신이 널려 있고, 기민이 수없이 많아 참혹한 현상이었다. 땅굴이 토한 것을 깊주린 사람들이 파리 폐처럼 달려들어 향았다는 참담한 현상이었다.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는 깊주려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sup>13)</sup> 서울은 생지옥과 같았다. 서울은 일본군이 10개월간 지배한 유일한 지역이다. 그래서 당시 서울 사람들이 일본말을 쓰지 못하도록 선조가 조처한 것으로 보아 서울 사람들 중에는 일본군에 협조한 사람들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행정의 문란과 관료의 착취에 백성들은 대단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왕조에 대한 불만은 반란으로 표출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반란이 이몽학의 난이었고, 지방에서 일어난 소규모의 반란은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 국민들이 조선왕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진 자가 대단히 많았다고 판단된다.

이몽학은 1596년 7월에 충청도 홍산에서 반란을 일으켜 이웃 몇 개 고을을

는 의리론을 강경하게 주장했다.

12) 계승범, 2013, 세자 광해군: 용상을 향한 멀고도 험한 길, 『한국인물사연구』, 20, 222쪽.

13) 李章熙, 1999,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60~64쪽

점령하였다가 진압되었다. 이는 바로 조선왕조의 무능과 부패를 고발한 사건이었다. 호랑이를 떼려잡는다는 명성을 가진 의병장으로서 전국의 의병의 총지휘를 맡고 해안가의 왜병의 횡포를 막아 냈던 맹장 김덕령이 그와 연결되었다는 무고를 당하여 신문 중에 사망하였다. 무장을 아낄 줄 모르는 문신과 선조가 그를 죽게 한 것이다.

선조는 공신책봉에서 자기를 따른 자를 호종공신 90명, 전쟁에서 싸운 장수를 선무공신 18명을 책봉한 데서도 선조가 전투의 어려움을 경시한 것을 읽을 수 있다.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이 불만이 쏟아지자 선무원종공신으로 9060명을 추가 책봉했다. 이는 후일 왕조유지의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왕조에 대한 성난 민심의 이반은 노비들이 도망치고, 양민들이 도적에 투합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 IV. 임진왜란 연구 상의 문제점과 연구방향

임진왜란사에 대한 연구사적인 성과에 대하여는 이미 조원래와 박재광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어졌다.<sup>14)</sup> 그리고 연구 상의 과제에 대하여는 조원래의 논문에서 중요한 점이 논해졌다.<sup>15)</sup> 이 위에 몇 가지 점을 더 제기하겠다.

임진왜란사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많은 연구와 저서가 있으나 이에 대한 총체적인 저서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허점과 공백이 많다. 이는 문헌실증사학에 얹매인 결과임을 지적하

14) 연구사로는 1999년에 써진 조원래의 논문 「임진왜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조원래, 2005,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에 재수록 됨)와 박재광, 2005,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에서 잘 정리되어 있다.

15) 조원래, 2012, 「임진왜란사 인식의 문제점과 연구과제」, 『한국사학사학보』 26.

지 않을 수 없다. 문헌은 역사의 실상을 그대로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자기 중심적인 자료일 뿐이다. 문헌이 부족한 면면을 밝히려면 역사가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사료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

예컨대 가장 많이 연구된 의병사 연구에 있어서도 의병장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의병의 구성원, 의병의 무기, 의병의 군사훈련 등에 대하여 살피려는 노력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의병구성은 주로 의병장의 노비가 중심이 되지 않았을 가 한다. 당시 노비는 전 국민의 3분의 2정도로 달할 정도로 그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지배층인 양반 사람의 활동에 있어서 노비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했다. 당시 선비는 노비가 없이는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주인과 노비의 관계는 군신과 같은 綱常 관계로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노비의 활동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홀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비가 농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감추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강화회담이 이루어져 일본과 명나라 군대의 주력이 철수했을 때 경남 해안가에 잔류한 일본병 2만3천여 명이 지배한 지역과 명군 1만6천명이 주둔했던 지역에서 그들과 지역민과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 예컨대 진주성이 함락된 후에 언제 우리 손으로 넘어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 정유재란 때에 진주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는 성을 빼앗은 후 일본군이 철수했으나 진주성은 일본군의 수중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란기의 전시 체제에 대한 연구도 자료만의 해석이 아니라 문제의식을 설정하고 이를 다방면으로 해석하려는 연구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은 주거지 이동을 한 계기가 되었다. 그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피난간 인민을 조선과 일본이 효유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도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의 피해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사 연구는 전 국민의 역사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역사를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정부의 전시체제, 당시의 전법, 전술, 전략에 대한연구, 당시의 행정체제의 운용, 일본군과 명군, 조선군의 무기문제만이 아니라 의복문제, 식량의 조달문제, 지역민과의 관계, 일본군과 명군의 대민전략, 통신과 교통 당시의 기후 문제 등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쟁사 연구가 문중중심의 역사학과 영웅 중심적 역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문중 중심의 연구는 아무래도 의병장의 공적을 현창함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영웅중심의 역사연구는 주위의 많은 사람의 공적과 역할이 감추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임진왜란사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중요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상세히 역주하는 기초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자료에 대한 기초연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일본 측 자료는 많은 자료가 분산되어 있고 이를 일반 연구자가 활용하기에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사 연구가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진왜란 사료에 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시민을 위한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연구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료에 대한 번역, 주석, 사료비판 등의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 V. 한·중·일의 중요 사료

역사연구는 사료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사료의 중요성은 그 생성과정에 따라 1차 사료, 2차 사료, 3차 사료로 구분한다. 1차 사료가 없을 경우 이를 근거로 생성된 2차 사료, 3차 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어느 사료이건 간에 모든 사료가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전쟁사의 사료는 비록 1차 사료라고 해도 모든 것이 역사적 진실을 말해준다고 할 수 없다. 전공을 부풀리거나 자기편의 불리한 점은 서술하지 않고, 상대방을 경멸할 가능성

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이에 역사가의 엄정한 사료 비판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료 비판이 사료의 부정확성이나 오류를 찾아낼 수는 있어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임진왜란에 대한 사료는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교할 때 한국 측 자료가 가장 풍부하다. 이는 당시 조선은 문인이 통치하는 사회였고, 전장이 우리나라였기 때문이다. 자료가 많다고 해서 전쟁사를 다룰 수 있는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자료는 전쟁사를 전 국민의 역사로 서술함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인이 남긴 한국 측 자료가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는 당시의 역사의 실상을 정확히 전해주지 못하고 있음이 태반이라고 할 수 있다. 육하원칙에 맞는 서술이 많지 않음을 뜻한다.

조선과 명 측 자료는 연대기적 자료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자료를 연대기로 정리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고대로부터 각 시대 자료를 연대기로 정리하는 작업이 『大日本史』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부분은 아직도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런 차이는 역사편찬의 전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은 사관을 두어 당시의 기록을 남겨 실록으로 편찬하는 역사적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명의 경우 연대기적 자료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전체의 『명사(明史)』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기전체의 역사편찬은 왕조가 멸망한 후에 이루어진다. 이는 조선왕조가 왜란 후 300여년 이상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또한 일제 식민지로 전락되어 전통적인 역사편찬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사는 기전체로 편찬되지 못했다. 기전체는 왕의 역사와 중요 사건을 편년체로 서술하는 본기와 국가의 통치제도, 지리, 문화 등을 분류별로 기록하는 지, 그리고 개인의 역사와 외국의 소개를 하는 열전으로 구성된다. 열전에는 전쟁에 참여한 장군들, 중요 대신 등의 기록이 담겨진다. 기전체의 역사에서 연대기적인 서술인 본기의 기록이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다른 자료가 추가된다.

한국의 연대기적인 자료에는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이 있다. 광해군 8년(1616)에 편찬된 『선조실록』은 총 221권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인 선

조25년(1592)의 3월까지 1년을 한 권으로 정리하였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한 달 기사를 한권으로 하여 이후 16년의 기록이 195권이다. 이처럼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선조실록』의 임진왜란 기록은 다른 왕 대의 실록과는 다르게 대단히 부실한 편이다. 빠진 기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록편찬자의 부주의로 전쟁사가 제대로 갖추어 서술되지 못했다. 전국적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란 7년 중 2-3년의 기록은 전쟁사 이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기록이 부실하다.<sup>16)</sup> 이 실록은 당시 북인 정권에서 편파적인 서술을 했으므로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광해군 집권이 끝나자 곧 바로 작업이 시작되었다.

『선조실록』의 임진왜란 기록이 주로 국왕이 대명외교에 노력한 것을 주로 서술했을 뿐 전쟁의 상황을 정확히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전쟁이 현장에서 일어난 후 수개월 후의 기사로 서술된 경우가 많다. 이는 전투의 발발 시점에 초점을 두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보고를 받아본 날에 기록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실록편찬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한 달 기사를 무조건 초하루 날에 실은 『선조수정실록』도 마찬가지이다. 『선조실록』은 실록이 가지는 연대기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선조실록』은 임진왜란의 연표를 만드는데 주 자료로 활용하되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선조실록』에서 기술하지 못한 의병사 자료가 많이 이용되었다. 이는 재야의 자료를 널리 수집해 편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 실록은 한 달의 기사를 모두 초하루 기사에 몰아 편찬했음으로 연대기 사서로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연대기인 『비변사등록』은 인조 이후의 자료만이 남아 있고, 『승정원일기』도 이 시기의 것이 남아 있지 않다.

명나라와의 외교문서를 정리한 책으로 광해군 때 편찬한 『사대문궤 (事大文

16) 이항복은 다섯 차례의 병조판서를 역임했다. 그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왕에게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의견을 올렸으나 거부되었다. 정구복, 2009, 임진왜란 자료에 대한 사학사적 검토-선조실록과 안방준의 역사기술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35 참조.

軌)』가 있다. 이 책은 광해군 11년(1619) 경에 1592년부터 1608년 광해군 즉위 년까지의 외교문서를 목활자로 찍은 인쇄본이었으나(총 54권 54책) 현재 규장각에 소장본은 23권 23책 뿐으로 첫 1~2권 등 절반을 잃어버렸다.

개인이 쓴 일기자료로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들 수 있다. 무장이 매일 매일 일기를 남겼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전투상황에 대한 것은 물론 주변의 인간에 대한 기록, 사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져 전쟁사 연구에 소중하며 정조대에 편찬된 『충무공전서』에 실려 있는 정부에 보고한 글을 함께 이용하면 우리나라 수군사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 실정을 생동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노비의 몸값을 징수하러 전북 장수 지방에 갔다가 왜란을 당하여 집에 돌아가지 않고 충청도 홍산, 청양 등에 혼자 머물면서 매일 매일 일기를 남긴 오희문의 『쇄미록』이 있다. 이에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아들 덕분에 그가 머문 곳의 수령이 용승하게 대접하고 전쟁 상황을 그에게 알려준 전쟁기사를 많이 싣고 있다. 이는 실제 전투상황을 직접 경험한 일기는 아니지만 피난생활을 통한 경험담이 당시 사회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부사의 서기로서 임진왜란 초기부터 경상도에서 전해 준 통보자료를 중심으로 매일 일기 형식으로 쓰기 시작하여 후에 다른 자료를 보충한 조경남의 『난중잡록』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임진왜란의 상황을 세밀하게 기록한 자료이며 호남지방 의병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고 특히 정유재란 상황을 알려주는 1급의 중요 자료이다. 또한 김성일의 막료로서 종사한 이로(李魯)의 『용사일기』, 이정암의 연안 전투기록인 『서정일록(西征日錄)』, 정경운의 『고대일록』도 귀중한 일기자료라고 할 수 있다. 윤탕연(1538~1594)이 임해군을 호종한 『복관일기』 등이 있다. 일기자료는 구체성을 띤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과 사건에 국한되는 단점이 있다.

정유재란 때에 일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강항이 쓴 『敵中見聞錄』을 후일 『看羊錄』으로 출간되었다. 이 자료는 당시 일본의 역사, 지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다.

이 밖에 200여종의 문집에는 각종 자료가 실려 있고<sup>17)</sup>, 이에는 일기류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자료가 15종이 확인되고 있다.<sup>18)</sup> 고문서 자료로는 공신녹권, 고신, 왕의 교서, 유지, 공명첩 토지문서, 분재기 등이 많이 전하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중앙의 최고재상으로서 임란을 처리한 유성룡이 후일 기억으로 쓴 『징비록』은 중앙에서 대처한 조처의 실상을 잘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그가 올린 장계와 군문등록류는 소중한 기록 자료이다. 징비록은 일본과 중국에도 전파되어 영향을 준 저술로 임진왜란사 전체를 다룬 최초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광해군 7년(1615)에 편찬되어 9년에 간행된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국가에서 표창된 1000여 명의 열녀, 충신, 호자 등이 그림과 그 내용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중 900여 명이 임진왜란 당시의 인물이다. 이에는 양반의 부녀자, 일반 백성, 향리, 노비 등이 다양하게 실려 있고, 수백 명의 부녀를 살해한 왜군의 잔학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당사자의 거주지역과 신분이 밝혀져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도판에서 왜군은 칼이나 창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방울무늬를 그린 옷을 입었고 조선 사람은 병거지를 쓰고 흰옷을 입었다. 목판화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것은 아니겠으나 훈도시를 차고 하체는 벌거벗은 왜병도 있다. 이는 당시 여름철에 출병한 왜군 병사의 복장을 본 사람이 그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도판의 제목은 사람의 성씨를 넣지 않고 이름과 공적을 네 자 또는 다섯 자로 달고 원문에는 한문으로 신분, 성명, 거주군현, 그리고 공적이 실리고 이어서 한글로 번역해 실었다. 이 책의 당시 쓴 한글 번역문에서 임진왜란은 임진왜난, 또는 임진왜란으로 기술하였다. 이 때 세운 향리 이하의 정려 등

17) 조원래, 2012, 「임진왜란사 인식의 문제점과 연구과제」, 『한국사학사학보』 26. 이 논문의 부록으로 84종의 문집류에 실린 자료가 소개되어 있다.

18) 이상훈, 2005, 「임진왜란 관련 사료해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경인문화사;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0,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한일문화교류기금, 경인문화사에 재수록.

은 현재 거의 전하지 않지만 광해군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의 전공을 포상한 공신책봉에 과정에 대한 자료로는 『호종선무청 난공신도감의궤』라는 기초 자료가 있다. 임진왜란의 전공포상이 전쟁에 싸운 사람보다 자기를 호종한 사람을 더 우대하였음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선무원종공신녹권』이 여러 부 전하고 있다. 선조의 사위인 신경이 쓴 『再造藩邦誌』는 명군에 대한 기록을 정리한 점에서 이용가치가 있다.

또한 가토의 선봉부대장이었던 沙也可가 300명을 인솔하여 경상병사 박진에게 투항했다. 그는 김충선으로 개명하였는데 그의 문집 『모하당실기』, 『모하당 문집』에는 조총을 만들라고 하는 서신을 여러 중요 인사에게 보낸 글이 다수 전하고 있다.

후일 편찬된 이궁익의 『연려실기술』은 3차자료로서 이에는 임진왜란의 기사를 조야의 기록을 통합하여 사건별로 정리한 역사서이다.

일본 측 임진왜란 자료는 당시 자료의 단편적인 기록이 있을 뿐 연대기적인 자료가 없으며 그 기록도 도쿠가와 정권의 수립으로 반 히데요시의 정책이 취해짐으로써 인쇄되지 못하고 사본으로 전해진 자료가 많다.<sup>19)</sup>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고니시의 자료는 거의 출판되지 못했다. 출정 장수 중 가장 많은 자료가 전하는 것은 가토 기요마사와 나베시마 나오시게 (鍋島直茂 1538~1618)의 자료인데 이는 그의 후손이 당시 막부정권에서 현달 했기 때문이다.<sup>20)</sup>

임진왜란의 직접적 자료로는 참전무사들이 남긴 자료 10여종과 참전 승려들이 남긴 자료 여러 편이 전하고 있다<sup>21)</sup>. 그리고 당시의 고문서 자료가 전하

19) 최관, 김시덕의 공저, 『임진왜란 관련 문헌 해제』에 자료의 소장처, 최근의 영인본을 밝히고, 당시의 자료와 이후 문학화된 자료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20) 최관, 2010, 「일본에 있어서 임진왜란 관련 문학의 전개양상」, 『임진왜란 관련 일본문헌 해제』, 도서출판 문, 18~21쪽 참조.

21) 정유재란 때에 울산성 전투의 기록인 승慶念의 『朝鮮日日記』, 요시노진자

나<sup>22)</sup> 이들 고문서가 함께 모아져 정리되지는 않았다. 당시 조선에 여러 차례 드나들었고 제1군인 고니시를 따라 통역 및 강화회담의 문건을 작성한 겐소(玄蘇)의 문집인 『센소고(仙巢稿)』는 반드시 참고해야 할 당대의 자료이다.

일본에서 임진왜란의 전체사가 정리된 것으로 오제호안(小瀨甫庵 1564~1640)의 '다이코기(太閣記)'을 들 수 있다. 이는 풍신수길의 일대기로서 권13~16까지가 임진왜란 기록이다. 이에서는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이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을 이은 전쟁이고 일본이 神國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종류로서 임진왜란사 전체를 다룬 책으로 호리 교안(堀杏庵 1585~1643)이 정리한 9권9책의 『朝鮮征伐記』가 있다. 이는 『태합기』를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후에 중국의 『兩朝平壤錄』, 『武備志』와 조선의 『징비록』, 『서애선생문집』 등이 이용되어 조선의 인명, 지명 등에 기존자료보다 많은 수정과 보완이 가해진 『조선정벌기』도 간행되었다.

『征韓錄』은 사쓰마 번의 제2대번주 시마즈 미쓰히사(島津光久)의 아들 명을 받아 시마즈 히사미치 등이 편찬한 시마즈 가문의 사적이다. 정유재란 연구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자료이다.

후켄문서찬(楓軒文書纂)은 고바야마 마사히데(小宮山昌秀)가 1783 『대일본사』 편찬을 위한 고문서를 수집하여 필사한 것이다. 『후켄문서찬』 95책 중 69~70책에 『韓陣文書』로 실려 있고 이에는 기요마사 등 7명의 장군 자료가 실려 있다.

그리고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群書類從』과 『續群書類從』이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자료를 분류별로 적어 놓은 자료집으로서 자료의 원문을 그대로 실은 것이 아니라 편찬자가 정리한 것이다. 이 중 『군서유종』은 총

---

에몬(吉野甚五左衛門)의 참전기록인 『요시노일기』, 마쓰라 시게노부(松浦鎮信 1549~1614)의 참전일기인 『松浦法印征韓日記抄』, 天莉이 쓴 『西征日記』, 是琢의 『朝鮮日記』 등이 있다.

22) 『淺野家文書』, 『毛利家文書』, 『島津家文書』, 『蝸島家文書』, 『前田尊經閣所藏文書』, 『黒田文書』, 『小早川家文書』, 『松浦文書』, 『李達家文書』(早稻田大學 소장), 『宗家文書』.

1793년에 편찬이 되었고, 530권이 666부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속군서류종』은 1822년에 편찬되어 1906년에 간행되었다. 이에는 ‘豐臣記’ 상중하 3권, ‘淸正記’ (合戰部 소재 권 652)3권 등 임진왜란에 참여한 장군의 기록이 다수 실려 있다.

명나라 자료는 원군을 파견한 명나라 신종의 『신종실록』이 전한다. 이 실록은 편년체로 서술된 자료이지만 황제에게 올린 문서를 주로 싣고 있어 임진왜란의 상황파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明史』의 神宗 본기와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기전체 자료인 『명사』에 조선에 참전한 장수의 열전 자료<sup>23)</sup>와 명사 본기의 출군 관계 자료 등이 있으나 폐전한 장수도 폐전했다는 기록은 없고 모두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미화되었다. 그리고 당시 병부상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石星과 심유경은 강화회담의 책임자로 처형되어 열전에 실리지 않았다. 『명사』 중 외국열전 중 『조선전』에 임진왜란에 대한 개괄적인 서술이 되어있고, ‘일본전’에는 平秀吉<sup>24)</sup>의 집권과정과 조선침략이 개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 내용은 정확하지도 않고 자세하지도 못하다. 『명사기사본말』이란 자료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茅止(茅元儀)가 1621년에 편찬한 『武備志』 240권은 중국의 兵書를 총 정리한 책으로 전술, 전략 등의 병법과 무기 등에 중요한 자료이며, 이에 실린 四夷에 관한 서술 중 『朝鮮考』에는 임진왜란의 개황이 서술되어 있으며 정유재란 때의 4로군의 공격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명나라의 임진왜란에 대한 당시 자료로는 조선지원군의 책임자인 經略 宋應昌이 편찬한 『經略復國要篇』이 있다. 이 자료는 1592년부터 1594년 3월까지의 대명지원군의 기사가 당시의 문서를 그대로 싣고 있어 원 자료라고 해야 할 것

23) 이여송, 이여매, 마귀, 동일원, 유정, 진린, 등자룡, 오광, 양호 열전 등이 관련된다.

24) 명 측과 조선 측 자료에는 豊臣秀吉를 平秀吉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풍신 수길이 關百이 되기 전 1583년부터 1585년까지 사용한 성명이다(김시덕 박사의 교시임). 小西行長은 平行長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다. 송응창은 명군 과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 강화회담을 주선한 사람이었다. 임진왜란 전체의 자료를 모아놓은 자료로는 諸葛元聲이 편찬한 『兩朝平壤錄』과 毛瑞徵이 편찬한 『萬曆三大征考』이 있다. 『양조평양록』은 목종(穆宗 1567~1572), 신종(神宗 1573~1619) 두 대에 있었던 왜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는데 특히 평양성 전투와 울산성 전투에 대한 기사가 상세하다. 모서징은 진사에 급제한 한 병부 직방사 주사를 지낸 사람이다. 그가 편찬한 이 책 중 조선관련 자료는 ‘왜’ 상하편에 실려 있다.

명나라 측의 참전 용사들이 남긴 일기 자료나 문집류의 자료가 아직 수집 정리되지 않고 있다. 강화회담 자료는 우리 측의 자료가 거의 없어 명 측과 일본 측의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의 연구에서 한·중·일 자료의 사료적 비판과 비교연구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전쟁 자료는 자기들의 전공을 과장하고 상대방의 비하하며 자신들의 피해를 솔직히 기록하지 않고 숨기려한 근본적 속성을 가지지만 이런 점을 고려하되 임진왜란 연구를 총체적으로 하려면 한·중·일 3국 자료를 함께 이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비교하고 비판하는 사료연구는 임진왜란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길이다.

## VI. 마무리

임진왜란사는 7년간의 전쟁사이다. 이에 대한 소감은 선조왕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조가 나라를 구제했다는 당대의 평가는 대단히 잘 못된 것이다.<sup>25)</sup> 그는 전쟁을 다룰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당시의 책임이 왕만이

---

25) 선조가 죽자 올린 묘호는 ‘宣宗大王’이었다. 광해군 2년 전공을 생각하여 ‘祖’라는 묘호를 올리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묵살되었다. 묘호가 ‘宣祖’로 바뀐 것은 광해군 8년 8월이었다. 그래서 8년에 이미 편찬이 완료된 실록의

질 것은 아니고 문치를 강조하던 당시 사람의 정계 인물들이 져야하고 보다 넓게는 당시의 정치적, 사상적 문제였지만, 모든 관료의 임명과 파면, 그리고 모든 일의 최종결정은 왕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임진왜란의 피해에 대해 전적 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전쟁을 당하여 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지도 못했고, 전쟁 기간 중 적절한 인물을 임용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왕위를 지키려는 간사한 꾀를 내었다. 명나라 측에서도 왕위를 교체하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최측근 비서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했다. 21차례나 양위의 뜻을 표명했으나 위선적 가식이었고 왕위를 지키기에 철저했다. 선위에 찬동한 관료는 유배를 보내는 조처도 취했다.

전란 중 선조가 한 중요한 일과는 명나라 군대의 중대장급 인사를 일일이 찾아가 영접하고 환대하는 일이었다. 그는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온 국가의 힘을 명군에 의지했다. 실제 명나라 원군이 아니었더라면 조선은 일본군을 축출할 능력과 대안이 없었다.

전쟁기간 동안 병조 판서를 5번 지낸 이항복은 선조에게 7년 전쟁 중 2-3년의 전쟁기사 없음을 들어 사관을 지낸 사람들로부터 사초를 써내게 하자는 건의를 선조에게 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이는 자신의 비행이 낱낱이 폭로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당시 사람들의 견문을 국가에서 수집하려는 노력이 실현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란 중 자신을 따라 호종한 사람은 노비까지 모두 호성공신으로 책봉하면서 전쟁에 참여한 무사는 겨우 18명을 선무공신에 책봉했다. 전사한 사람을 그는 홀대했다. 이에 많은 불만이 터지자 선무원종공신으로 9,060 명을 추가 책봉했다. 이 중에는 선무공신으로 책봉되었어야 할 많은 사람이 포함되었다.

---

명칭은 『宣宗大王實錄』이었고, 수정실록은 『선조대왕수정실록』으로 인쇄되어 있다. 왜 선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졌는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광해군 일기』의 부실로 확인할 길이 없으나 선종이란 묘호를 올린 것은 전공을 크게 평가하지 않은 탓으로 여겨진다.

선조는 무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순신이 해상왕이 된다는 원균이 퍼뜨린 소문을 듣고 무장 세력의 성장을 내심 두려워했다. 이순신을 하옥시키고 맹장 김덕령을 옥사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선조였고, 이에 동조한 당파적으로 움직인 집권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왕이 적임자가 아니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 가지 않고 그 피해는 전 국민이 겼다. 임진왜란기에는 더욱 그랬다.

임진왜란사는 전 국민의 역사로 쓸 수 있는 전통시대의 가장 좋은 소재이다. 이는 단순히 죽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로 서술할 수 있는 주제이다. 6·25전쟁과 여러 가지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이점에서 임진왜란사는 현재적 의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지리적, 기후적, 생태학적, 병리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교통과 통신, 당시의 농공상업의 상황, 외국 군대의 유입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영향 등이 연구되어야 한다. 당시의 질병, 의식주 상황 등에 대하여도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자연과학자나 사회과학자가 함께 참여할 때 임진왜란 연구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생한 역사로 서술될 수 있다.

논문투고 : 2016.11.11, 논문심사완료 : 2016.12.15, 게재확정 : 2016. 12. 20

## 참고문헌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懲毖錄』, 『亂中日記』, 『亂中雜錄』, 『新修續三綱行實圖』, 『瑣尾錄』, 『明史』, 『經略復國要篇』, 『兩朝平壤錄』, 『萬曆三大征考』, 『武備志』, 『群書類從』, 『續群書類從』

- 계승범, 2013, 「세자 광해군: 용상을 향한 멀고도 험한 길」, 『한국인물사연구』 20.
- 김시덕, 2016, 『일본의 대외전쟁』, 열린책들.
- 김유성 이민웅역, 2008,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경인문화사.
- 박재광, 2005,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李章熙, 1999,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 이상훈, 2005, 「임진왜란 관련 사료해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경인문화사.
- 李炳錫, 1974, 『壬辰戰亂史』 4책, 임진전란사편찬위원회.
- 정구복, 2009, 「임진왜란 사료에 대한 사학사적 검토 – 선조실록과 안방준의 역사기술을 중심으로 –」, 『전북사학』 35.
- 정구복, 2014, 「한중일 사료로 본 왜교성 전투의 주역들」, 『정유재란과 왜교성전투』 (사)이충무공유적연구보존회.
- 조원래, 2005, 「임진왜란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 조원래, 2012, 「임진왜란사 인식의 문제점과 연구과제」, 『한국사학사학보』 26.
- 조원래 김수, 2014, 『정유재란과 왜교성전투』, (사)이충무공유적연구보존회.
- 최관, 김시덕, 2010, 「임진왜란 관련 일본문헌 해제」, 도서출판 문.
- 中村榮孝, 1969, 『文緣・慶長の役』.
- 北島万次, 1995,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Abstract

Researches on the Japanese Invasion in  
the year Imjin and Historical Materials in  
Korea, China and Japan

CHUNG, Ku-Bok

This article is based and improved on the keynote speech made in the 59th Korean Historical Conference held in 2016. It explained the internation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Imjin war. It broke out due to the interaction with Western powers thus was an international and looting war. The victory of Japan at the beginning was due to the large scale troops while the local Chosun military units were small scaled. The failure of protecting the Hangang river, strategically very important as a natural shield of Hanyang was due to lack of responsibility of King Seonjo and his literary officials. The reversal of the military situation, the victory of Chosun, was evident in the recapture of the Pyeongyang fortress by Ming soldiers in the early January, 1593. However, the author pointed out that before that, Admiral Lee Sunsin won all the naval battles and the civilian righteous soldiers had recaptured the fortress. At the breakdown of three-year-long peace conferences, Japan invaded again with the intension to occupy Jeollado province, the granary of Chosun. It committed ruthless slaughters and captured civilians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plundering war.

During the war, people of Chosun were disappointed at the incompetency of King Seonjo and his policies and revolted against corruption of Chosun government. Even with the corruption, Chosun dynasty could survive for more than 300 years after the Imjin war. The reason was the growing power of local literary elites(士林) with the political philosophy of Neo-Confucianism.

For a big picture research of Imjin war, the author noted the necessity of new research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forces and the local people in the occupied regions, military provisions of Japanese and Ming troops and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of the time. In particular, in researches on the civilian righteous armies, slaves(奴婢) were categorized under the term 'farmer' but it should be differentiated. The article compared important historical materials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research based on original source materials and critical judgment of the materials.

Keywords : Imjin war, civilian righteous soldiers, the incompetency of King Seonjo and his policies, literary elites(士林), Ming soldiers, Neo-Confucianism, original source materials.